

홈 > 뉴스 > 기획 > 신탐라순력도

## "음식.숙박 네트워크화해 관광 활성화"

김양윤 평대리장

데스크승인 2014.08.25 한애리 기자 | arhan@jejunews.com



"신화역사의 흔적인 당이 있고, 숲, 바다, 오름, 밭, 용천수, 환해장성까지 평대리는 제주가 간직한 모든 것을 자기고 있는 '제주의 축소판'입니다."

김양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장(55.사진)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지역의 역사 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화 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장은 "당근을 비롯해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우리 마을은 풍작이 돼도 걱정, 흉작이 돼도 걱정이다"며 "마을 자원을 잘 닦아서 관광상품화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게 되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김 이장은 영농조합 중심으로 지원되는 행정의 저운저장고 지원 등에는 아쉬움을 토로

했다.

그는 "모든 농촌의 과제가 풍작일 때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적정할 때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일 것"이라면서 "이 저온시설 등을 마을에 보급하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장은 또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을 꾸려 지역의 음식·숙박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마을의 관광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이장은 "마을기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마을에 재투자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살려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